

지역 **메아리**

김제보건소 금연자조모임 운영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백산면 중조, 공덕면 서리 금연 자올마을에서 금연실천자 및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금연자조모임을 운영했다.

이번 금연자조모임은 단백요, 나트륨, 니코틴검사 및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 동영상 상영, 금연실천자의 실천사례를 청취하고 마을주민들이 금연지킴이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특별한 만남은 이웃인 금연실천자를 서로 격려해주고 금연의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들으며 금연을 실천한다는 일이 어렵고 힘이 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주민들의 격려와 힘이 금연실천에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금구면에 김장김치 200포기 전달

김제시 금구면 주민자치위원회(이정곤 위원장)는 지난 15~16일 이틀 동안 사랑의 김장담그기를 실시하고 17일 관내 경로당 및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취약 계층 가정에 사랑의 온정이 담긴 김장 김치 200포기를 전달한다.

이번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는 위원들이 직접 텃밭에서 재배한 배추와 무를 이용해 김장을 담아 어려운 이웃과 나눌 의미를 더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부터 이어져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다.

한편 금구면에서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기관 및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행복나눔 릴레이 자원봉사' 활동을 매달 실시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교원동 통장협의회 새만금 2호방조제 산업시찰

김제시 교원동 통장협의회(회장 최창익)는 16일 통장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 2호방조제와 새만금 33센터 방문하여 산업시찰을 실시하였다.

이번 산업시찰은 새만금 2호방조제 김제 관할 결정 2주년을 기념하며 새만금에 대한 이해와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의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원들은 고창 선운사 일대 탐방 후 새만금 현장으로 이동해 김제시민의 힘으로 확보된 2호 방조제 구간을 포함한 새만금 방조제 33km 전 구간을 지나며 미래 발전의 동력이 될 현장을 직접 둘러보았다.

이후 지평선산업단지과 김제자유무역지역을 방문하여 입주해 있는 기업과 국가연구센터 등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기간 연장

완주군, 2020년까지 3년간 추가 시행... 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결정

완주군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기간을 추가 연장,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16일 완주군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5월 22일까지였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기간을 2020년까지 3년간 추가 연장해 시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등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가 대상이다.

분할 신청 방법은 공유자중 1인이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완주군청 종합민원과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사안은 완주군 공유토지분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결정된 토지는 분할정리 후 단독소유로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완주군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기간에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공유토지 분할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특례법을 이용할 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달이실 합곡 축제 성료

주민이 만들고 지켜가는 달이실 합곡축제가 성료됐다.

16일 완주군은 지난 15일 비봉면 내월리 5개 마을이 함께한 '제10회 달이실 합곡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세종 원년 대마도를 정벌한 류승장군 개신행렬 재현과 두레 풍물패 합곡을 비롯해 귀농귀촌 인과 관광객이 모두 어우러진 음식나눔 행사까지 다채롭게 진행됐다.올해로 10회를 맞는 달이실 합곡축제는

달이실(내월리의 옛 이름)에 잠든 류승장군의 기상을 기리는 행사다.

김제열 관광체육과장은 "문화의 집과 보존은 현재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진다"며 "10회를 맞은 달이실합곡 축제가 내월리 주민들의 소중한 문화자원으로 지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내달 말 완주군에는 봉동원구만 마을의 해남이 연날리기 축제가 특색 있는 마을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우리 쌀빵 드시고 행복하세요'

김제농기센터, 한울양로원 방문... 손수 만든 쌀빵·누룽지 전달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는 15일 김제시 생활개선 쌀가공 연구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제시 죽산면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인 한울양로원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쌀가공연구회 회원들이 손수 만든 쌀빵,누룽지를 전달했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소비 촉진을 위해서 2016년 23명의 쌀가공연구회를 조직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장비를 활용해서 다양한 쌀가공품 제조 기술을 전수했으며 올해는 쌀가공품중 소비 비중이 큰 떡과 현대인의 식생활 소비패턴을 반영 쌀빵 가공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쌀은 밀가루에 비해 건강한 식생활 유지에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쌀을 섭취하면 비만, 당뇨 발생을 확실하게 예방하고 있다.

쌀은 천천히 흡수되어 급격한 혈당 상승 방지로 당뇨를 예방하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며 식이섬유로 비만, 고혈압을 예방하므로 성인병 발생률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반드시 다시 찾아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쌀가공연구회에서는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자체개발한 지역 방문 쌀파지자를



김제시농업기술센터는 15일 김제시 생활개선 쌀가공 연구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제시 죽산면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인 한울양로원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쌀가공연구회 회원들이 손수 만든 쌀빵,누룽지를 전달했다.

보했으며 쌀빵 나눠주기 행사, 쌀의 신소비층 확대를 위한 쌀이용 요리놀이 체험 행사를 추진하는등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쌀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쌀의 가치를 알리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쌀가공연구회 성화순 회장은 쌀가공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생산자를 위한 쌀소비의 필요성과 함께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증가되는 밀 위주 식단을 쌀 위주 식단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쌀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의 작목으로의 위치찾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양로원을 방문하여 잠시나마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쌀가공 연구회원들 한사람 한사람의 정을 담아 정성스럽게 만든 쌀빵을 전달하여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 사회 주민이 될 수 있어서 기쁘게 리고 행복했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백구면 체험의날 맞아 홍보·프로그램 진행

김제시 백구면(면장 정관주)이 지평선아카데미 백구면 체험의날을 맞아 백구면 홍보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연등의 다채로운 식전행사를 준비하여 백구면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16일 제537회 지평선아카데미는 식전공연은 조은희주민자치위원장의 '오늘의 행복으로 내일을 꿈꾸는 백구면 이야기'를 주제로 PT(홍보자료)를 발표하여 백구의 산업, 문화, 관광과 미래를 알렸으며 더불어 그간의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재미있게 동영상으로 제작 발표하여 아카데미 참석자 및 백구면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요가교실과 노래교실의 수준높은 공연이 이어져 식전행사 내 박수갈채를 받으며 웃음꽃을 선사했으며 이날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이장단, 부녀회등 15개사회단체 100여명이 참석하여 백구면 화합의 장이 되기도 했다.

정해섭백구면사회단체협의회장은 이날 "4차 산업시대의 농업의 아카데미 강연을 통해 미래 농업의 발전을 이해하고 농업인으로서 자세를 새롭게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 농업과 백구면 발전을 위해 우리 백구면민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비봉면 사회보장협, 백김치 나눔 사업 진행

완주군 비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춘만, 조영옥)가 독거노인에게 백김치 나눔 사업을 진행했다.

16일 비봉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고산농협 등의 도움으로 독거노인 50세대에 백김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영옥 비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배추 100포기, 이진숙 고산농협비봉지점장이 50포기를 후원하고

위원들이 손수 농사지은 무, 양파, 참쌀 등을 기증했다.

이를 가지고 지난 13일 배추절임을 시작으로 갖은 양념을 마련한 뒤 14일 김치를 담아 15일 위원들이 직접 독거노인 50세대를 방문, 전달했다.

백김치를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속이 편한 백김치로 겨울 내 시원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략산업과
 063-430-2951